

책&뉴스

그 '섬뜩한 프로젝트' 미군을 노려본다...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낯설다 못해 엽기적이기까지 한 제목이지만 영화 쪽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9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조지 클루니가 제작과 주연을 맡고 유언 맥그리거, 케빈 스페이시, 제프 브리지가 공연 주연한 동명의 영화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제목 역시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The Men Who Stare at Goats)'이었다.

책은 영화보다 앞선 2004년에 나왔고, 영국 BBC에서 3부작의 미니 시리즈로 제작 방영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

30년간 벌어진 미군 기이한 프로젝트
구름 터뜨리기·노려보며 염소 죽이기
SF 아닌 실화...당사자들 직접 인터뷰
탐정처럼 역사의 이면을 벗긴다

쳤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미군은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비밀부대를 창설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군 관례는 물론 물리학의 법칙까지도 무시했다. 투명 망토를 입은 듯 모습 감추기, 벽 통과하기, 구름 터뜨리기. 심지어 노려보는 것만으로 염소를 죽일 수 있다고 믿었다.

저자는 당사자들과 직접 인터뷰해 지난

30여 년간 벌어진 기상천외한 사실을 추적했다. 이런 활동이 미국과 전후 이라크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에 바탕을 둔 논픽션(다시 말하지만 SF소설이 아닌 실화다!)이면서도 스텔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직설적인 폭로의 차원을 넘어 마치 사립탐정처럼 사건의 단서를 찾아 1950년대 미국 메릴랜드 주의 소도시 프레더릭에서 2000년대 이라크 아부그레이브와 판타나모 수용소까지 역사의 이면을 종횡으로 가로지른다.

과연 일급 다큐멘터리 제작자다운 솜씨다. 네 명의 남자와 염소 한 마리가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는 노란색 표지도 근사하다.



존 론슨 저·정미나 옮김 | 미래인 | 1만1000원

신간 소개

'유령' 완벽감상을 위한 안내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2001년 한국 초연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오페라의 유령'의 한국공연을 성사시킨 설엔 컴퍼니 설도운 대표이사가 쓴 '오페라의 유령' 이야기. 1부에서는 뮤지컬의 메카 브로드웨이 시스템을 간략히 설명한 뒤 원작자 가스통 르루와 당시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둘러싼 역사와 전설을 소개한다. '오페라의 유령' 완벽감상을 위한 필수코스이다.

2부는 1992년 뉴욕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본 설 대표의 "어느 날 극장 앞에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된



다. 1995년 한국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첫 시도와 무산, 한국공연 시장에 의문을 제기한 원작자 설득과정,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무대와 공연장 등 감춰두었던 속이 이야기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쏟아진다. 3부에서는 인터내셔널 투어팀을 만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거쳐 한국 무대에 브로드웨이 배우들을 서게 한 2005년 투어공연의 이야기이다.

설도운 저 | 숲 | 1만2000원

'문학천재' 마이클 세이본의 걸작

●캐벌리어와 클레이의 놀라운 모험 1·2

'독자를 위한 작가', '장르를 뛰어넘는 문학천재'로 불리는 마이클 세이본의 '매그넘 오피스(최고 걸작)'로 꼽히는 책. 문학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그에게 풀리처상을 안겨 준 작품이다.

1940년대 뉴욕을 주무대로 유럽과 남극 대륙을 오가며 펼쳐지는 두 유대인 소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실제 역사적



사건들과 빈틈없이 맞물린 두 소년의 놀라운 탈출, 황금빛 꿈과 두려움, 기묘한 사랑과 아픔이 16년의 시간을 관통한다. 두 권 합쳐 1000쪽이 넘는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일단 잠으면 놓기 힘든 책이다. 별 다섯을 주고 싶은 이야기다.

마이클 세이본 저·백석윤 옮김 | 루비박스 | 각권 1만 3000원

군대의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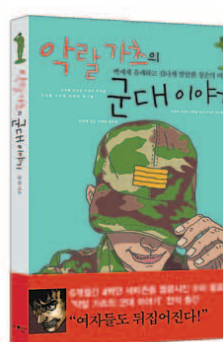
●악랄가츠의 군대이야기

남자들이 군대에서 추구한,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풀어낸 저자의 '구력(口力)'이 놀랍다. 올 4월 자신의 블로그 '악랄가츠의 리얼로

그'에 첫 연재하자마자 인터넷 포털 '다음'의 베스트글에 선정됐고, 이후 매일 수만 명이 접속하고 수백 명이 대화창에서 새 글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글이 찼다 하면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릴레이를 펼쳤다. 문화관광부장관을 지낸 김명곤 전 장관도 열렬한 팬이었다(김 전 장관은 이 책의 추천사도 썼다).

군대를 다녀온 이들에게는 더 없이 즐겁고 신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들에게도 즐겁고 신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이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열광한 군대 이야기. 이 책을 읽다 보면 다시 군대가 가고 싶어진다(거짓말이다).

황현 저 | 바오밥 | 1만2000원



“눈동자 30초간 돌리면 창의성 쑥쑥”

美 연구팀 “안구운동 사고력과 연관”

안구를 30초 가량 좌우로 움직이는 눈 운동을 하면 창의적인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미국 대학 연구진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 뉴저지의 리저드 스톡턴 칼리지 심리학 연구팀은 눈 운동과 창의적인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논문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62명의 자원 실험 대상자들

모집, 눈 운동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이 증진되는지를 테스트했다. 안구를 좌우로 30초 가량 움직이도록 한 뒤 벽돌 또는 신문 등을 내놓으며 '어디에 쓸 것인지'나름의 아이디어를 내보라는 실험을 진행한 것. 실험 대상자는 오른쪽 또는 왼손 중 한 쪽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는데 이들 중 눈 운동을 한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눈을 가만히 둔 채 앞만 쳐다본 나머지 절반보다 벽돌의 용도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제시했다.

국내 첫 '속눈썹 영양제' 나와

래쉬푸드 “식물성 추출물 부작용 없어”

(래쉬푸드 코리아(대표 임병문·사진))는 국내 최초로 속눈썹 영양제 '래쉬푸드(Lashfood)'를 출시한다. 래쉬푸드는 미국의 속눈썹 전문 업체 제인뷰티에서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해 미국 AMA 연구소의 안정성 패널 테스트를 거친 후, 눈썹 영양제로는 최초로 미국 FDA(미국식품의약품)에 등록한 제품이다.

▲악하고 잘 빠지는 눈썹을 건강하게 만들고 ▲속눈썹 모근에 영양공급을 함으



로써 길고, 굵고, 풍성한 속눈썹을 만들고 ▲16가 지 내추럴 식물성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처방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쓰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래쉬푸드는 국내 본격 마케팅 활동을 앞두고 전국 각 지역별로 판매 총판과 취급점을 모집 중이다. 대리점 문의는 전화(02-2152-3152) 및 홈페이지(www.lashfoodkorea.com)에서 가능하다.

경기지역 스키장 영업 시작

경기 지역 스키장들이 20일 슬로프를 열고 이번 시즌 영업을 시작했다. 경기도 이천 지산리조트스키장과 용인의 양지파인리조트스키장, 포천 베어스타운스키장은 이날 제설작업을 마친 슬로프 1~2면

을 개장하고 스키어,스노보더를 맞았다. 양지파인리조트 관계자는 “요즘 기온이 낮아진데다 며칠 동안 집중 제설작업을 해 오늘 설원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즌 방문객들이 양질의 설원에서 안전하게 스키를 즐기길 기원하는 기설제를 올렸다”고 말했다.



스키의 계절이 돌아왔다! 20일 개장한 경기도 용인 양지파인리조트 스키장에서 사람들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고 있다.



“날 보는 저 아가씨들...안경이 왜 저래?” ‘2009 고릴라의 해’를 맞아 ‘고릴라 구출작전’ 이벤트를 진행 중인 서울대공원 신유인원관에서 어린이들이 가짜 눈이 그려진 안경을 쓰고 고릴라를 바라보고 있다. 고릴라는 눈을 마주치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번 이벤트는 29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제주도 돌하르방, 독일 라인강변에 세워진다

제주도의 상징 돌하르방이 중부 유럽 최대의 강인 라인강변에 세워진다. 제주시는 28일 세계문화유산지구인 독일 로렐라이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그 기념으로 라인강변의 로렐라이언트 방문자센터 앞 광장에 높이 3m의 돌하르방 문.무관 1쌍을 세워 제막식을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로렐라이를 포함해 5개국 13개 도시와 국제교류도시로서의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 징표인 돌하르방이 유럽에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도시는 세계유산 보호관리 및 관광, 문화, 행정, 경제, 청소년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과 독일 간 우호친선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이판서 관광객에 총기 난사...한국인 6명 부상

동남아시아의 관광지로 유명한 미국령 사이판에서 20일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관광객들에게 신원미상의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6명(총부상자 8명)이 부상했거나 사망자는 없으며, 괴한은 자살했다고 외교교통상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현지시각으로 오전 11개 사이판 시내 관광지 마르코 지역의 만세절벽 부근에서 신원미상의 괴한이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에게 총기 10여 발을 난사하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우리 관광객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야동 보는 교장 vs 그 교장 찍어 돌린 학생들

대만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근무 중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여자 나체 사진들을 보는 장면이 폭로돼 행정원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학생들은 교장의 갑상 장면을 사진이나 휴대전화 동영상 등으로 돌려 보면서 인터넷에서 열띤 토론까지 벌이고 있어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교장은 사진들을 보고 지냈으나 학생이나 교사가 계락을 꾸며 보는 순간을 망원 카메라로 포착해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내 갈등과도 연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대만 사회의 최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편집 | 차형재 기자 hk7048@donga.com

